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 서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75호 현대불교

29

2012년 2월 15일(음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정신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살기가 점점 더 급박해집니다

마음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문)** 사실 어떤 때는 보면 종교인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바르게 잘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마음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답)**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라고요. 송장이 된 말이에요.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 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쪽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영화 촬영이 돼야 되는데, 감독을 쫓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감독이라는 자체의 참자기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에 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걸을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겠지요? 정신세계를 모르면 지금 현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기가 점점 급박해져요.

예를 들어 지금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이게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직여진다면 그건 첨단인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만약에 버스타면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녀도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그런 거와 같이 자기가 정신세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르면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돼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즉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풍정이 덮여 있지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런데 글

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이 모두를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면서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웠을 때 그 접시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접시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서 그 대로 움직여주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만 하는데 이것을 풀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우주 세계를 가려도 한 찰나예요. 또 바로 앞을 내다보는 거

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같아요. 맞 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납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읊이 없이 가고 오는 신축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

차만별의, 모두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넘나 무쇠나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리 없죠. 넘마전에 금이 갈리 없고 광통 공장에 금이 갈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차원대로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 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지가 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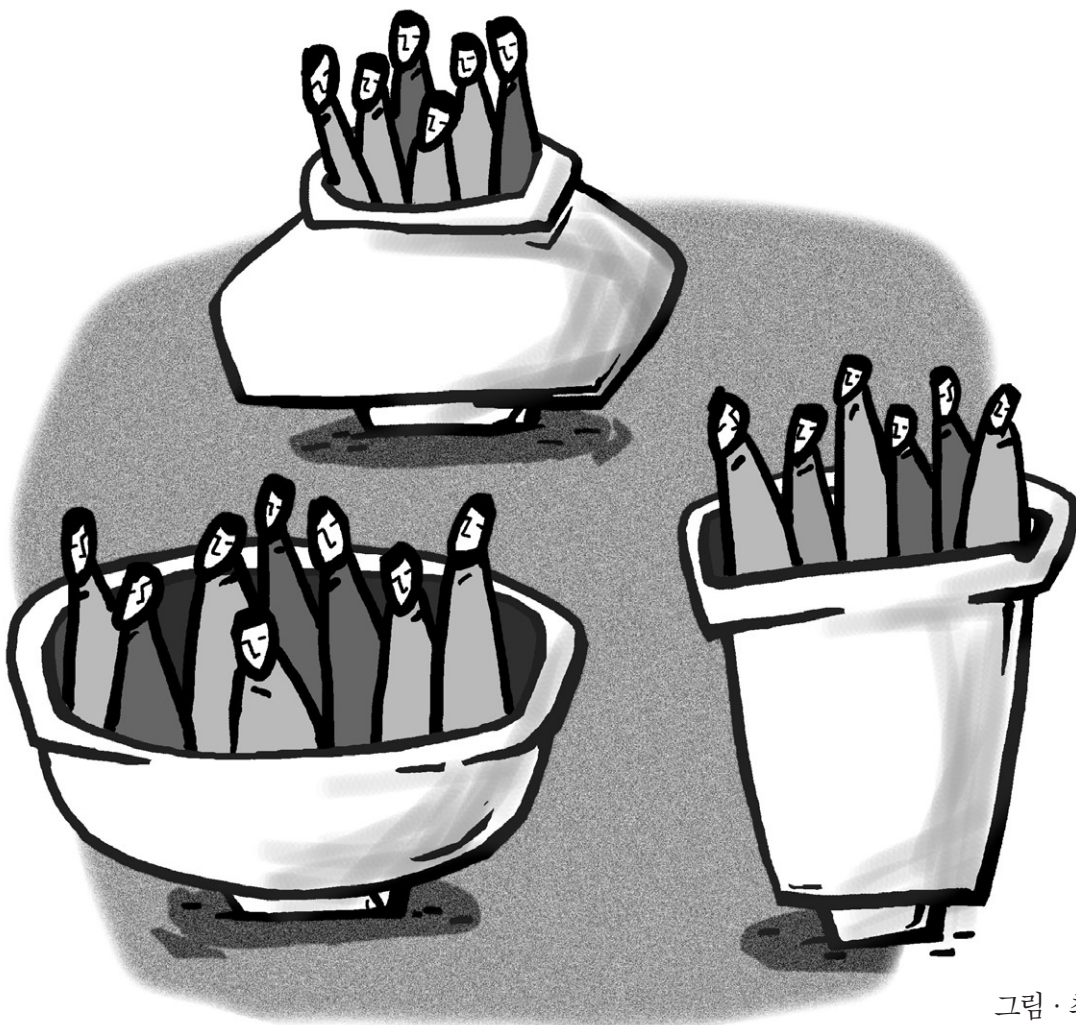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뉘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 고야, 사대 성인들이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 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그랬거든요. 너부터 모 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네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여기 저기 다 시험을 봐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치는 대로 조금조금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내지만 안정된 직장이 없어 부모님께 서 걱정하시니 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살던 그 모두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모두가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것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이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한탄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공,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꾸자꾸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마음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일체가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거기서 입력이 돼서 나왔다고 믿고 다시 거기다 일임해서 맡겨 놓고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이 없 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의 마음을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또는 부드러운 말로써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맡겨 놓고 간다면, 바로 그 게 입력이 되니까 자꾸 되돌아 나와서 지금 현실에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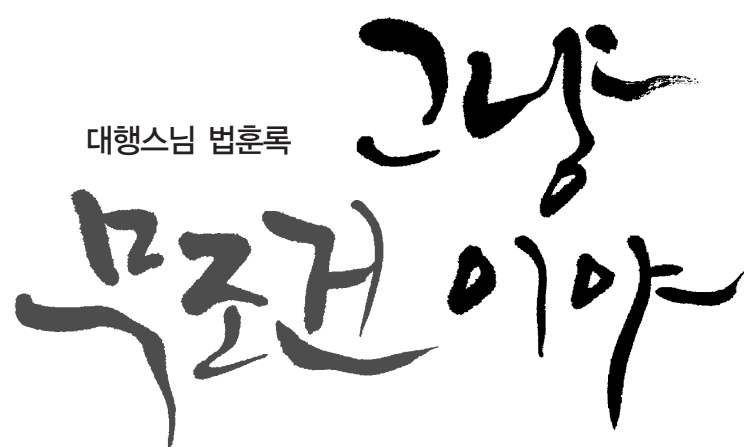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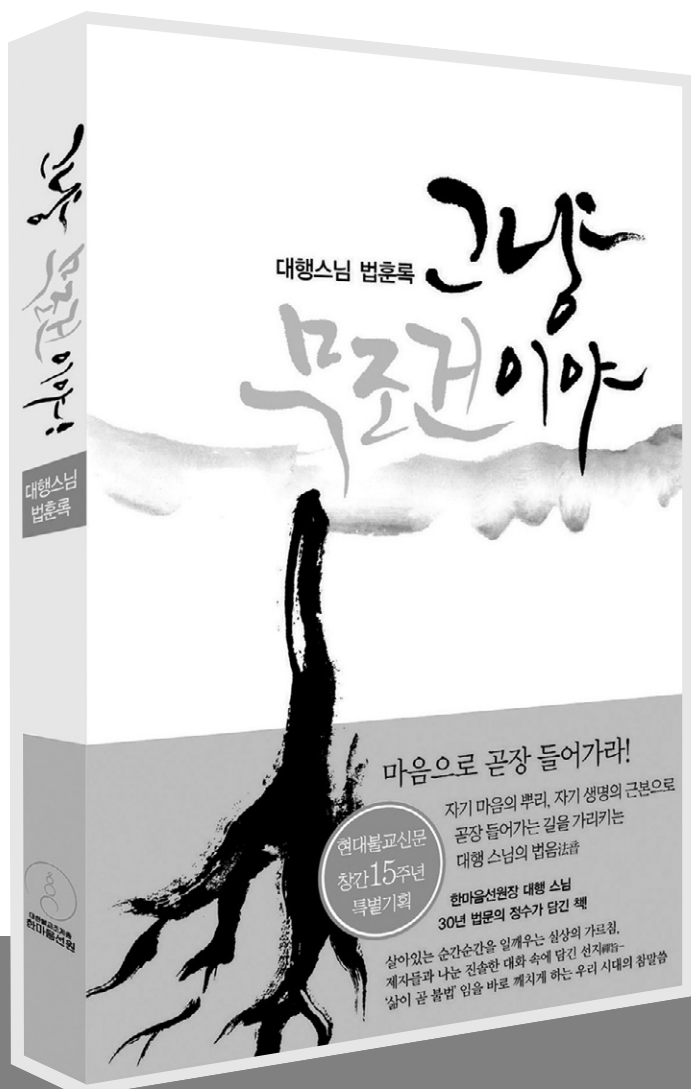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29면에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나는 왜 이렇게 안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러한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지하다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아는 것, 마음을 아는 거. 일체 만물,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 연결, 팩스는 내 몸중이가 아닌 마음 자체에 모습 없는 모습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그런 능력. 일체 모든 소리를 전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통신기.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바로 천체망원경.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오븐 속에 물건을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을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기구가 그대로 그 재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면 '주인공, 당신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또는 가난하면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또는 모든 가정의 화목도 '당신만이 화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고 그 일체를 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체를 다 거기다 놓는다면 자기 한마음으로써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발견한다면, 전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모든 일체의 만물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발견한다면, 거기서 생활학 천문학 지리학 또는 의학 문학, 모든 것이 일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거기서 병난 거니깐 내가 낫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낫게 하라!'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병난 거니깐 거기서 고쳐야죠. 병원에서 30%를 고쳐 준다 한다면 여러분이 70%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삽니다. 왜냐. 병이 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의사는 거기 있으니까. 몸속에 수만 가지의 생명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풍팔이 아프면 풍팔 공장에서 낫게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뇌에서 병난 거는 뇌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다 낫게 하고 또는 어떠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너는 알잖아.' 하고서,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돌아 아닌 깨달에 항상 한마음으로써 돌아가니까,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는 싸움이 없

어지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항상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 병이 나도 걱정 없고, 또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무한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문) 조그만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자기를 믿고 한번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도 부탁하기에 딱해서 해 줬는데 사업은 망하고 친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집안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애들 교육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친구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이런 뻔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운 참 한마음의 한 점의 광대한 그 범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죽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아마 그 죽 한 그릇은 되짚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정성껏 시주를 하시라고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도리를 배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람이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라 이겁니다. 내 것만 아낄 줄 알고 내 것만 있는 줄 알고 모두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니가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조상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 참다운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 나로부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로 무주상 보시를, 진짜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그 오신통을 그대로 부리면서 참다운 대장부로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길잡이가 돼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주춧돌로 삼고 거름으로 삼아서 현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익을 취하십시오.

### 선업을 쌓으면 나쁜 과보 면할 수 있는지요

문)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는다면 그 선업으로 인해 나쁜 과보를 면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이 즉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니까, 그래서 공즉시색이 전부 공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되 너를 믿어라. 너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 믿을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현실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현실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태초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러니 그 업보 타령 하지 마시고 병고 타령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 볼 때 실행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할 때 체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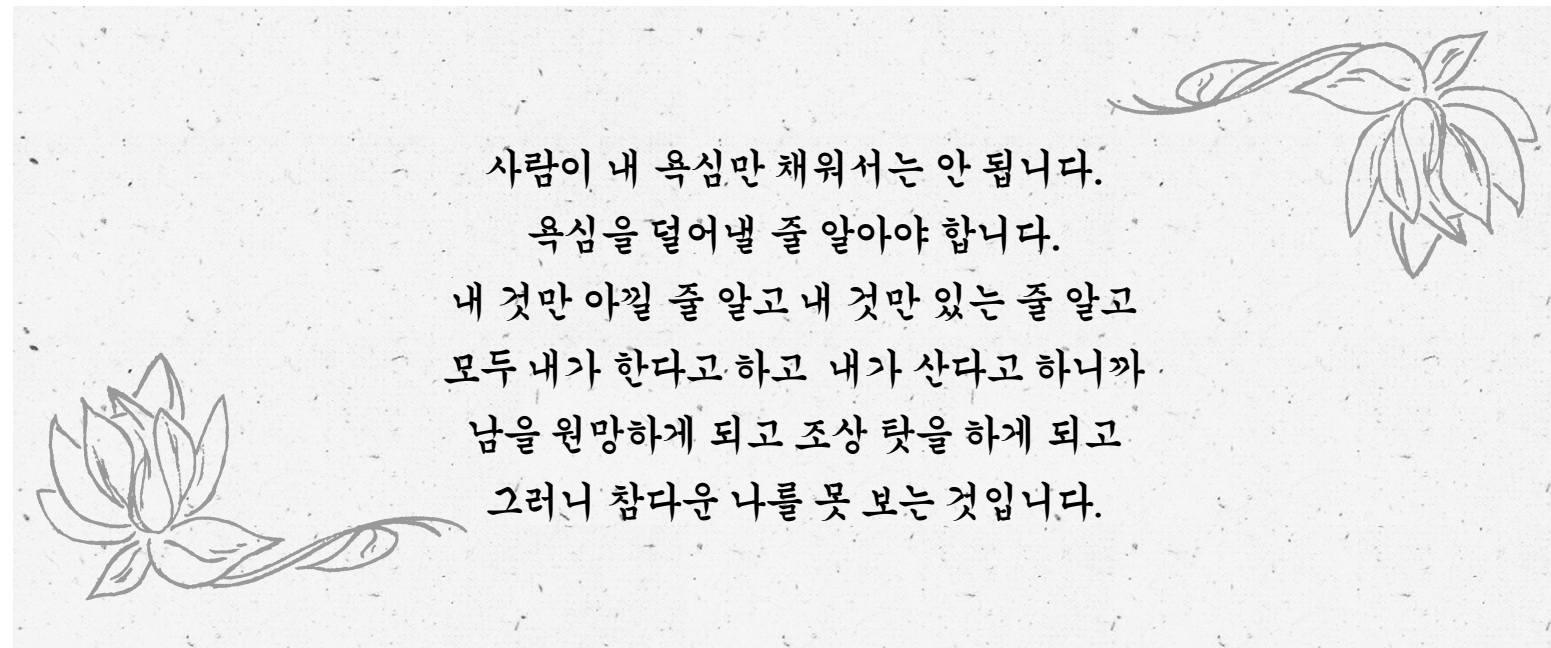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사는 데에 그렇게 편안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변소에 가도 거기 주인공이 있을 것이요, 강당에 가도 거기 있을 것이요, 내 안방에 들어가도 거기 있을 것이요. 야,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 먼 데로 내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못되게 해 주시오. 나를 병고 낫게 해 주시오.' 그리고 저 멀리 보고선 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깝게 두고 '야, 영원한 친구야. 내가 이렇게 아프면 너 심부름을 어떻게 할까?' 야, 이런다면 다리가 아팠다고도 그냥 걷고 가게 된다 말입니다.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소.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나쁘게 하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하고 갑니다.

그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믿지 못한다면 그만둬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이 불교이며 끝안데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 절의 울긋불긋한 분위기에 거부감이...

문) 절에 가면 울긋불긋한 분위기가 현대 젊은 이들의 감각에 다소 미신적인 듯하고 거부감이 좀 있는 듯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려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울긋불긋하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색인을 말해요. 우리 지금 세상 모두, 늙고 젊고 애기고 어른이고, 남자와 여자고, 이런 것을 전부 돌아가면서, 또 나무는 나무대로 꽃이 피고 또 물은 물대로 흐르고,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추수도 해 들이고 이러는 거를 전체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울긋불긋이라고 할 수도 있죠, 뜻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한다면 마구니 소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구니라고 피하고 나쁘다고 피하고 좋다고 갖고 이런다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



답) 우리가 내 중심에서,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하지 않은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적합하지 않다면 건너질 말아라 이겁니다. 뛰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분수에 맞게,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면 언제나 해로움을 당해요. 개천을 건너질 때도 내가 건너 질만 해야 건너 뛰는 거지, 건너 뛰지 못할 때 턱 건너다가는 한쪽 다리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의 끼움을 쓰고 한 일생이, 그렇게 짧은 한 기간이 처참하더라는 얘깁니다. 모두들 '야, 일생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사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파고 쓰리고 이어가는, 삶을 칼로 찌꺼기 이어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일생도 있으니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어디 우릴 떠나서 있었습니까? 밥을 떠 놓고 떡을 해 놓고 빌었던들 어찌 그 참다

물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탓이지 독질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사정을 모르기에 그렇기 그 사정은 사정대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값싼 사랑, 애정 이런 데서 자비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담하게 죽고 사는, 또 아주 쓰러지고 아프고, 따뜻하고 좋고, 이런 걸 한데 합친 그것을, 바로 균등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이 우주의 근본 한 점의 바로 그 원리를 아주 값비싼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려걸랑 몽땅 다 주십시오. 하나하나 내 거네 거, 이러면은 다 연질 못합니다. 몽땅 다 주신다면 몽땅 다 서로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몽땅 다 나 아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가,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야 우주의 섭류의 근본을 알아서 우리는 서

비행기 탈 때 프로펠러 돌아가죠? 거기에 먼지 앓을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리고 쉬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앓을 바도 없고 병이 붙을 바도 없고 업보가 붙을 바도 없고 뭐, 또 그 악업 선업이 거기 붙을 바도 없습니까. 공해서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면, 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주인공을 모른다면, 그 마음 도리를 모른다면 팔자 운명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다시 입력을 한다면 팔자 운명이, 입력했던 그 과거가 다 무너지고 소멸된다 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맡겨 놓는, 그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작업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과거가 전부 소멸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세상에, 이 길을 가르쳐 주신 당신에게 무엇으로 갚으리까?" 하는데, 나는 나 믿으라고

##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국민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